

‘고갈 위기’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율 1.6→1.8%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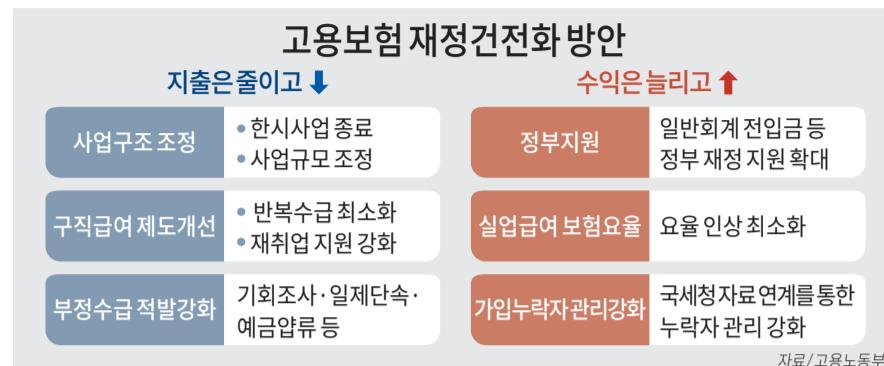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재정 건전화 방안 의결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출 급증
일각선 재정위기 국민에 전가 비판

내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 분담한다. 평균 월급 288만 원 받는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나눠 내게 되는셈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충당을 위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과



시기를 놓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올리면 노사가 각각 0.9%씩 분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었을 때 주는 실업급여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등 지원에 쓰인다. 고용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

후 약 3년 만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보험료율을 또 다시 올리기로 한 데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누적되면서 고갈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3조 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000억원으로, 전년(8조 4000억원)보다 45.3% 증가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실업급여 적립금은 4조 원인데 오는 2023년 고갈될 것으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예견된 일 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출도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확충을 위해 기금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내

년 약 2조 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 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 6000억원을 절감한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급여액을 삭감하고,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예산도 늘린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오는 2025년 약 8조 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식약처, 내년도 예산 6446억 편성 방역물품 공급·소비환경 대응 방점

중앙임상시험심사위 운영 확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대국민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2년도 예산을 올해(6110억원)보다 336억 원 증가한 6446억원으로 편성했다.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달라진 소비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백신 안정적 공급·지원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도 시작한다.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먹거리 안전 확보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최초로 설치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한다.

어린이 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위생관리를 돋고자 영양사가 없는 전국 4만 여개 급식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지도·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외식,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난 만큼 프랜차이즈, 배달음

식점 등에 대한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지정을 확대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역량 지원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역량도 지원한다.

기술 발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기준 2200여개에서 3000여개로 확대하고, 통신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 관리(GMP) 기술지원에 나선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홍보

오는 2023년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50개 유형)을 설정해 안내하고,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30억원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된 물질이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해 인체적용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패한 대선 주자 용납하지 않을 것”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식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8월 수출액 532.3억… 10개월 연속 증가

15대 품목 수출 두 자리 상승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8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작년 11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3개월 연속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삼성 최초로 15대 품목 수출이 두 자리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2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9% 증가했다.

수출은 작년 11월 3.9%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6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월수출액 500억달러 돌파 ▲해당 월의 역대 1

위 수출액 경신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중이다. 이 같은 선전 속에 올해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9억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내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이 꾸준히 선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의 신산업이 역대 8월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면서 전통산업과 새로운 유망산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軍, 중공군 전사자 유해 109구 中 인도

중공군 전사자 ‘유해 입관식’ 실시 2014년부터 716구 유해 인도

중국은 한국전쟁(6·25) 발발 70주년 이었던 지난해부터 ‘한미원조전쟁(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용어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갈라쳐 왔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올해도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공손히 중국에 인도한다.

군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의 전사자 유해를 반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때문에 유해 인도에 대한 국민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이다.

국방부는 1일 중국 군당국과 함께 대규모 중공군 전사자 ‘유해 입관식’을 인천 소재 육군부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이 입관시키는 중공군 유해는 109구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측은 최신 전략수송기 Y-20을 인천공항에 보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Y-20을 보낸 건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다.

/문형철 기자 captim@